

삼성 내야수 강한울, 전역 후 첫 1군 입성

등록 2020.09.10 18:06:07



【광주=뉴스시스】류형근 기자 =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즈의 2018 프로야구 경기, 3회초 무사에서 삼성 8번타자 강한울이 타격을 하고 있다. 2018.03.27. hgryu77@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권혁진 기자 =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강한울이 전역 후 처음으로 1군에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은 1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2020 신한은행 쏘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전을 앞두고 강한울을 1군에 등록했다.

지난달 27일자로 상무 생활을 끝낸 강한울의 시즌 첫 1군 입성이다. 강한울은 전역 후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익혔다.

2014년 KIA 타이거즈를 통해 프로에 뛰어난 강한울은 2017년 최형우의 보상선수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그해 강한울은 135경기에서 타율 0.303, 도루 12개로 힘을 보탤다. KBO리그 통산 기록은 505경기 출장 타율 0.265.

빠른 발과 내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강한울의 가세로 삼성은 좀 더 다양한 작전 구사가 가능해졌다.

최근 타격 부진에 시달리는 내야수 이성규는 2군으로 내려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